

2024년 8월호

리아호나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앙의 초점

모로나이 대장이 주는 신앙에 관한 교훈

영적인 전투에 대비하는 방법, 4쪽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

지금도 전례 없는 시기인 이유, 12쪽

모로나이는 “땅에 엎드려, 땅을 소유할 그리스도인의 무리가 남아 있는 동안은, 자유의 축복이 자기의 형제들 위에 머물러 있기를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나니.”

엘마서 46:13



영적인 준비를 통해 굳건한 신앙을 세움

영적인 어려움으로 가득 찬 시대에 선지자와 사도들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삶에서 마주하는 그러한 어려움의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고 가르칩니다.

이번 호에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일 지 렌랜드 장로는 모로나이 대장이 어떻게 신앙과 독창성과 전술로 백성들을 준비시켜 주님께서 레이맨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축복을 내리시도록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모로나이는 패배한 적의 지도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셨도다.] 이제 나는 이 일이 … 우리의 종교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으로 말미암음인 줄을 너희가 깨닫기 바라노라.”(앨마서 44:3)

렌랜드 장로는 이렇게 썼습니다. “모로나이[는] 우리가 현대 생활의 어려움에 대처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원리들을 모범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우리가 …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한다면,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권능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4쪽)

이번 호에 실린 기사와 이야기들은 우리가 이를 행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들을 보여 줍니다. 저는 제 기사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모든 계절을 견뎌 내기에 충분한 신앙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택하겠다고 최종적으로 완전히 결심하기를 기원합니다.”(44쪽)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어려움을 대처하는 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준비를 더 잘 갖추게 될 것입니다.


마크 디 에디 장로
칠십인

“자유의 축복을 위해”. 스포츠맨 스노우. 복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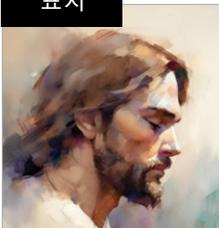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우리가 영원한 구원과 영적인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위해 계속해서 싸울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데일 지 렌랜드 장로, 4쪽

특 집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공식 잡지
2024년 8월호
제61권, 제8호
리아호나 19294 320

표 지



“겸손하게 기도하오니”, 제이 브라이언트 워드, 복사 금지

목 차

- 4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데일 지 렌랜드 장로
모로나이 대장은 우리가 현대 생활의 어려움에 대처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원리들을 모범으로 보여 주었다.
- 10 **여기에 교회가 있다**
트리니다드토바고
- 12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에 전례 없는 시대를 맞이하다**
케빈 에스 해밀턴 장로와 스티븐 티 록우드
성전과 통신 기술의 성장이 우리 개개인과 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
- 20 **사람들에게 성전에 대해 뭐라고 말해야 할까?**
제시카 앤 로런스
우리가 주님의 집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이야기할수록 성전 의식에 참여하도록 서로를 더욱더 격려하게 될 것이다.
- 25 **신앙의 초상**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지식
이나에 레안드로
- 26 **후기 성도의 소리**
전 세계 회원들이 영감 어린 이야기를 나눈다.
- 36 **선교 사업 중인 자녀에게 여러분의 지지를 전달하는 방법**
런던 브림울
선교사와 마음을 고양하는 대화를 나누기 위한 3가지 제언.

재일화장단: 러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욱스, 헨리 비 아이어링
심이사도 정원화: 제프리 알 홀랜드, 디에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록,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날 엘 앤더슨, 로널드 에이 래스밴드, 게리 이스티븐슨, 데일 지 렌랜드, 게릿 더블유 공, 올리세스 소아레스, 패트릭 키아론
편집자: 랜들 케이 베네트
부편집자: 리카르도 피 히메네스

고문: 잰 이 뉴먼, 마이클 티 링우드, 크리스틴 엠 이
관리 책임자: 제이슨 제이 미첼
교회 잡지 책임자: 애덤 시 울슨
출판 팀 관리자: 리 기본스
비즈니스 관리자: 가프 캐넌
코디네이터: 딜론 보즈, 클라크 마일즈
관리 편집인: 마틴 배런
관리 부편집인: 브리트리니 비티, 라이언 카, 시 매슈 올리턴, 민디 셀루
출판 보조: 낸시 서튼

기사 작성 및 편집 팀: 게릿 에이치 가프, 차젤 워들레이 허버트, 마이클 알 모리스, 앨리슨 알 우드
편집 인턴: 런던 브림울, 올리비아 이 그레이슨, 이사벨 저스티스
미술 책임자: 마이클 던퍼드
디자인: 아이라 글렌 여데어, 페이 피 앤드러스, 줄리 버넷, 데이비드 그린, 브라이언 더블유 지기, 콜린 힝클리, 스티븐 넬슨
디자인 인턴: 알리 파머
제작 관리자: 얀온 해리스
제작 팀: 베일리 에스카밀라, 에바니 페이스, 머리사 엠 스미스, 데릭 워시번

인쇄 책임자: 스티븐 티 루이스
배부 책임자: 넬슨 곤잘레스
통관: 제701호, 제61권, 제8호
최초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재등록: 2021년 11월 3일, 서초-라11806호
발행일: 2024년 8월 1일(월간지)
발행인: 박경렬
편집 및 번역 책임자: 안덕현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0 정곡빌딩 남관 205호
인쇄인: 한국학술정보(주) 채중준

청년 성인

30 영적인 경험이 기대와 다를 때
애비 라킨스
 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며, 여러분의 방식은 다른 사람의 방식과 다를 수 있다.

34 세상의 어둠 대신 복음의 빛을 선택함
데이비드 다네프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대회에서 얻은 경험을 통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

와서 나를 따르라

40 엘마서 36장 및 37장
 물문경 학습을 뒷받침하는 기사.

44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더욱 굳건해짐
마크 디 에디 장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 신앙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굳건히 두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새로운 『리아호나』 기사 더 보기

매달 더 많은 『리아호나』 기사를 liahona.ChurchofJesusChrist.org 또는 복음 자료실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리아호나에서는 『와서 나를 따르라』, 독신 성인, 자녀 양육, 인생의 어려움에 신앙으로 대처하는 회원들의 이야기 및 통찰의 주제를 번갈아 가면서 다룬다.

청년 성인 주간 메시지

복음 자료실의 잡지 또는 성인 섹션 > 청년 성인 섹션에 있는 **청년 성인 주간 메시지**에서 청년 성인을 대상으로 한 기사를 더 찾아본다.

참여해 주세요

liahona.ChurchofJesusChrist.org에서 잡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의 링크를 이용하여 질문과 피드백,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을 우리에게 알려 주십시오.

여러분은 liahona@ChurchofJesusChrist.org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다음 우편 주소를 통해 우리와 연락할 수 있습니다.
 Liahona, floor 23
 50 E.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0023, USA

복음 자료실 앱 알림 설정
 복음 자료실 앱에서 설정을 하면 새로운 『리아호나』가 발행될 때마다 알림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메뉴 아이콘을 선택하신 후 설정, 알림, 새로운 자료를 차례로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30

우편 주소: Liahona, Fl. 23,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0023, USA.

『리아호나』(“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문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셜어, 말라가시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마어, 사모아어, 세르비아어, 세부어, 스와힐리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바키아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중국어(간체자),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태국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 (발행 빈도는 언어에 따라 다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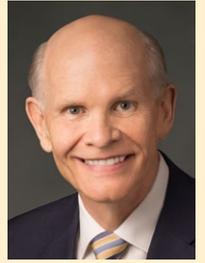
© 2024 by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저작권 정보: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리아호나』에 실린 자료는 교회 및 가정에서 (교회 부름을 포함하여)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 권한은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습니다.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시각 자료는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 North Temple St., Fl 5,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ChurchofJesusChrist.org.

For Reader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August 2024 Vol. 48 No. 8. LIAHONA (USPS 311-480) English (ISSN 1080-955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ubscription helpline: 1-800-537-5971.**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ll UAA to CFS (see DMM 507.1.5.2). NONPOSTAL AND MILITARY FACILITIES: Send address changes to Distribution Services,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USA.





데일 지 렌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모로나이 장군처럼, 우리도 삶에서 겪는 전투에서 신성한
도움과 권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 문경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니파이인과 레이맨인 간의 전쟁 역사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저는 겨우 스물다섯 살에 니파이인 군대의
지도자로 임명되었던 모로나이 장군의 신앙과 독창성, 그리고 그가
사용했던 전술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현명하고, 강하며, 영리했습니다. 그는
백성의 자유와 복리를 위해 전적으로 헌신했습니다.(앨마서 48:11~12 참조)
모로나이는 군대의 성공을 자신의 공적으로 돌리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
그리고 그의 군대가 민간인인 여성과 어린이들에게서 받은 성스러운 지원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패배한 적의 지도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셨나니], 이제 나는 이 일이 ... 우리의
종교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으로 말미암음인 줄을 너희가 깨닫기
바라노라.” 그런 다음 모로나이는 다음과 같은 예언적인 통찰을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종교에 충실한 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시리라.”(앨마서 44:3, 4)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모로나이가 우리가 현대 생활의 어려움에 대처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원리들을 모범으로 보여 주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한다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권능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축복을 인식하려면, 모로나이가 자기 인생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전쟁에 대해 준비하고 그것에 맞섰듯이,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이해하고, 성공을 위한 전략을 짜고, 우리가 맞닥뜨리는 은유적인 전쟁을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돕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을 이해함

모로나이는 백성들이 누구인지(아브라함의 성약의 상속자), 그들이 누구의 사람들인지(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그리고 그들이 어떤 대의를 위해 싸웠는지(가족, 신앙, 자유)를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모로나이는 백성들이 다름 아닌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그리고 억압과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 싸우고 있음을 가르쳤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적들은 사람들을 지배하여 자신의 영달과 권력을 얻기 위해 싸웠습니다.

일부 니파이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권좌를 찬탈하려 하자, 모로나이는 자신의 외투를 찢고 그 조각에 자신의 핵심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종교와 자유와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자녀를 기억하여” 그는 장대 끝에 “자유와 기치”라고 칭한 이 깃발을 매어 들고, 백성들에게

그 싸움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상기시키며 대의를 위해 그들을 결집하는데 그것을 사용했습니다.(앨마서 46:12~13, 19~20 참조)

인생에서 겪는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 어둠의 … 주관자들과 … 악의 영들을 상대”로 합니다.(에베소서 6:12) 우리 또한 이 싸움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닐 에이 맥스웰(1926~2004) 장로님은 간결하면서도 힘 있는 다음 대화를 통해 이 생각을 표현하셨습니다.

2004년에 저는 맥스웰 장로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분의 병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방문하거나 도움을 준 모든 사람에게 매우 친절하셨습니다. 그분의 병실로 들어갔던 의료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병실을 나왔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맥스웰 장로님, 정말 힘드시겠어요.” 그분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데일, 우리는 필멸의 세상에 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물 밖에 있는 물고기처럼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관점을 가질 때에야 비로소 필멸의 삶이 지닌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성한 본질과 영원한 운명과 함께 우리를 반대하는 사악한 세력이 거대하게 얽혀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우리가 영원한 구원과 영적인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위해 계속해서 싸울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성공하기 위해 전략을 세움

모로나이는 자신의 군대가 전투에 임하는 내내 성공을 거두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는 적들의 동향과 의도를 알아내기 위해 첩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는 선지자 앨마에게 인도도 구했습니다. 그런 후 모로나이는 그 영감에 찬 의견을 전투에 적용했습니다. 그는 필요에 따라 자원을 배치했는데, 방비가 약한 도시에는 더 많은 병사를 두었습니다. 그는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전략적인 운영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로써 그는 적군보다 우위를 점했습니다. 그는 결코 과거의 승리에 만족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앞으로 겪게 될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자신과 자기 군대의 능력을 계속 향상시켰습니다.

우리는 이와 유사한 접근법을 사용하여 영적인 적대자들을 다룰 수 있습니다. 먼저, 사탄이 우리 삶에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우리 목적에서 벗어나도록 방해하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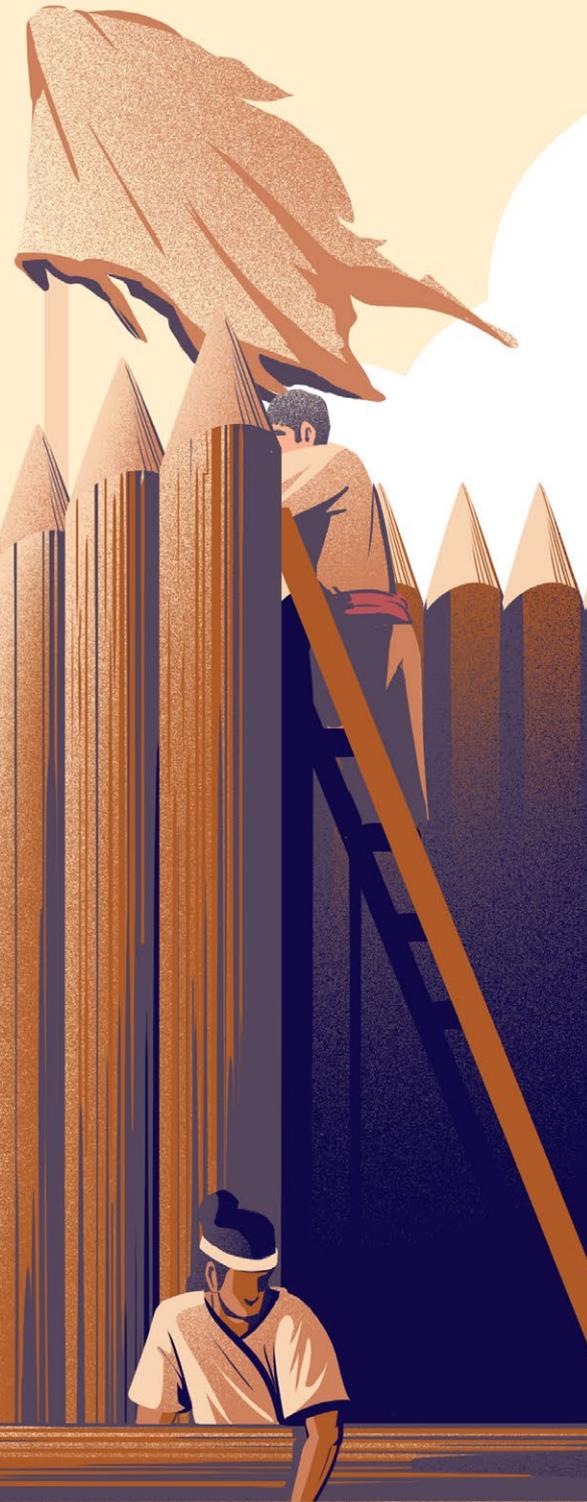
애씁니다. 유혹에 직면할 때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 내가 하는 이 행동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에 얼마나 부합하는가?
- 이 행동을 하는 사람은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가?
- 이 행동은 내가 지상에서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우리는 또한 작은 유혹일지라도 그것에 굴복할 때 맞게 되는 최종적인 결과를 인식해야 합니다. 유혹에 굴복할 때 우리는 “점차로 독약을 먹”게 되는데(앨마서 47:18), 이는 악의 세력이 사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으로, 영적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후기의 선지자가 주는 지시를 따름으로써 사탄의 유혹에 맞서 자신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행동을 평가할 수 있는 영원한 관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일어나는 유혹에 어떻게 맞설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세우면 그 순간에 더 올바른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리 계획한 전략과 접근법은 우리의 영원한 목적에서 방해가 되는 것을 막아 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디지털 기술을 들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유용하기도 하고 해가 되기도 하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 기기와 관련한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 우리는 노소를 불문하고 “Taking Charge of Technology”¹와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선택을 위한 안내서』²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우리의 목적을 상기시키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며, 성신을 우리 삶에 초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디지털 기술을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계획하면 우리는 부도덕하고 세속적인 술책에 맞서 우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은유적인 전투를 준비함

모로나이는 다가오는 전투를 예견하며 백성들을 가슴판과 방패, 투구, 두꺼운 옷으로 무장시켰습니다. 그는 도시들을 보루로 둘러싸고 흙 제방을 쌓아 백성들을 총체적으로 준비시켰습니다.

영적인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므로써 개인적으로 준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우리 삶에 불러들이기 위해 하나님과 성약을 맺고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경전을 탐구하는 것과 같은 개인적인 헌신의 행위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받는 영적인 지시를 따르는 가운데 신앙을 행사합니다. 우리는 정성을 들여 준비하고 합당하게 성찬을 취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구주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굳건했던 모로나이의 삶에 실재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 더욱 실재하시게 됩니다. 모로나이는 자신이 인도와 구원을 받기 위해 구주께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앨마서 48:16 참조) 우리도 인도와 구원을 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강화함으로써 더 많은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당신께로 돌아가는 방법을 배우도록 우리를 가족으로 조직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족은 우리에게 도움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가족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위대한 가족의 일원임을 기억함으로써 기쁨과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 공동체에 참여할 때 함께 힘을 얻고 영적인 전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테이크와 지방부는 그러한 피난처와 방어진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영적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서로를 도우며, 언제나 특히 시련의 시기에 그리스도께 의지하도록 서로 격려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 우리는 혼자서 싸우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돕고 보호할 수 있는 친구와 교사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준비할 때 더 강해집니다.

놀랍게도, 모로나이는 백성들이 누리는 모든 행복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신들의 신앙과 자신들의 종교에 보인 진실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로나이처럼, 우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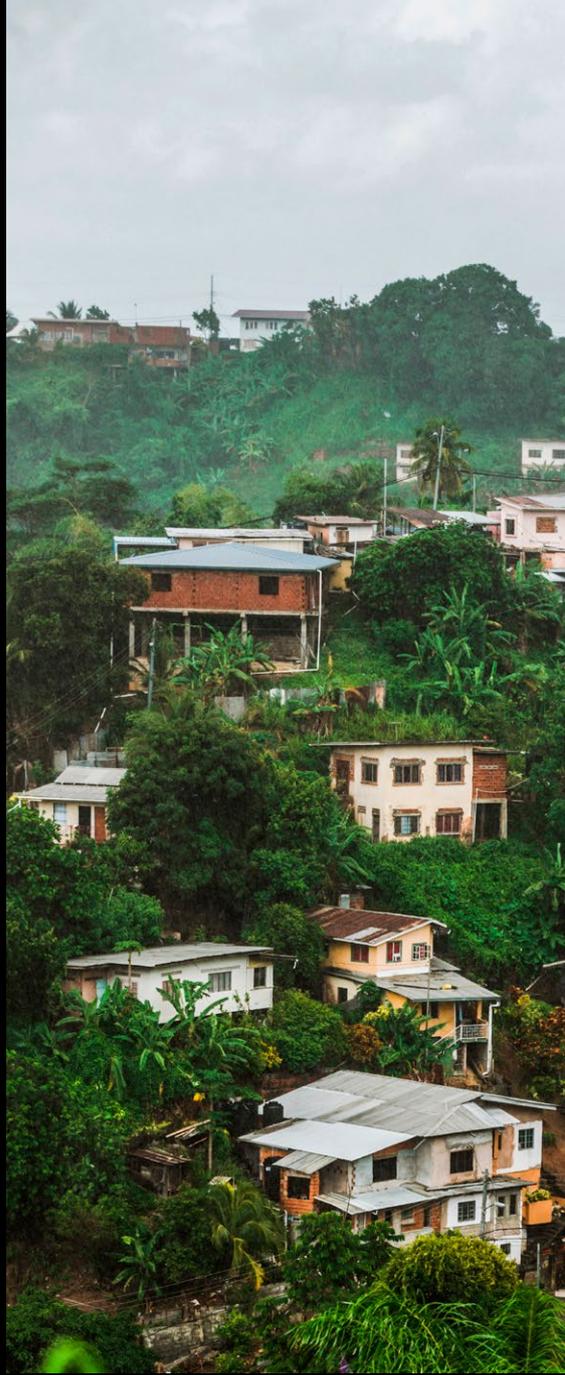
기쁨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로 말미암아 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³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이해하고, 성공을 위한 전략을 짜며, 은유적인 전투를 준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과 권능을 받게 됩니다.

모로나이처럼,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박으로부터의 궁극적인 자유, 즉 죽음과 죄로부터의 자유를 가져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서 그분들을 바라볼 때, 그분들은 그분들의 권능으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

주

1. "Taking Charge of Technology", 복음 자료실.
2.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선택을 위한 안내서』(2022), 복음 자료실.
3. 러셀 엠 넬슨, "기쁨과 영적 생존", 『리아호나』, 2016년 11월호, 82쪽 참조.







여기에 교회가 있다

트리니다드토바고

1980년 6월 5일, 트리니다드토바고의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첫 번째 지부가 수도인 포트오브스페인에 조직되었다. 지난 40년 동안, 트리니다드토바고의 교회는 다음과 같이 성장했다.



회원 (약) 3,400명



스테이크 1개, 와드 및 지부 10개



패밀리서치 센터 1곳

트리니다드토바고에는 아직 성전이 없으므로 이곳의 성도들은 성전 예배를 위해 도미니카 공화국과 같은 곳으로 충실하게 여행한다. 아리마 지부의 회원인 루안 존슨은 성전 의식에 참여하는 축복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성전에 있을 때 느끼는 평안은 지상의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오른쪽 사진: 루안 존슨 제공

가족 역사부 집행 책임자인 칠십인
정원회의 케빈 에스 해밀턴 장로와
가족 역사부 관리 책임자이자
패밀리서치[Family History] 회장
및 최고 경영자인 스티븐 티 록우드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에 전례 없는 시대를 맞이하다

세계 역사상 이토록 많은
성전이 있었던 적도 없었고,
최신 기술 덕에 (우리와
종교가 다른 사람들까지
포함해) 이토록 많은 사람이
가계도에 더해진 적도 없었다.

『리아호나』 직원이 해밀턴 장로와 록우드 형제에게 성전과
디지털 기술의 결합으로 전례 없는 주님의 구원 및 승영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에
대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분은 무엇에서 동기 부여를 받으시니까?

해밀턴 장로: 이 일에는 분명 하나님의 손길이 존재합니다.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영적 기초를 강화”하라고 권유하시면서, “전례 없는 시기에는 전례 없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¹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과 같은 성장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180개에 달하는 성전이 운영 중이고, 수십 개의 성전이 건축 중이며, 해마다 수십 개의 성전이 발표되는 등 우리는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성전 건축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장에 발맞추어 인류의 가계도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넬슨 회장님은 성전이 “이름에서 자양분을 얻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² 조상들이 의식을 받고 회원들이 평생 성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이름을 제출하여 성전에 자양분을 공급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가족 역사 사업에서 구주를 최우선으로 삼는 방법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해밀턴 장로: 종종 우리는 먼저 계보에 집중합니다. 그 계보가 우리를 조상에게로 인도하고, 그리하여 우리는 의식에 참여하고 성전에서 성약을 맺게 되며, 그런 다음 성약으로 구주께 결속되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것도 훌륭하지만, 우리는 그 순서를 뒤집어야 합니다. 구주가 가장 먼저 와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과 더 친밀한 관계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집에 가서 의식을 받고 그분과 성약을 맺으며 자신을 그분께 결속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돌아가신 조상들을 찾아 성전 의식을 행함으로써 조상을 위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주에서부터 출발하여 “저는 조상들이 성전 의식을 통해 구주께 결속되도록 돕고 싶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스마트폰을 몇 번 누르기만 하면, 패밀리서치의 “받을 수 있는 의식” 도구가 의식을 집행해야 하는 가족 구성원을 검색해 그들이 구주와 결속될 기회를 얻도록 돕습니다. 정확한 순서는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주님의 집인 성전에서 절정을 이루는 성약과 의식입니다.

록우드 형제: 패밀리서치는 전 세계 사람들이 자기 가족을 찾고 그들과 연결되도록 돕는 일에 헌신하는 봉사 단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일의 핵심이며 우리는 100년 이상 이 일을 해 왔습니다. 교회는 성전과 패밀리서치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점점 더 가까워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똑같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도록 방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및 승영 사업의 일부분인 이 일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무엇인가요?

록우드 형제: 20년 동안 가족 역사부에서 일하면서 보았던 가장 놀라운 일 중 하나는 전 세계에서 정말 많은 사람이 가계도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패밀리서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 교회 회원이 아닙니다. 지구상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 사람이 그것을 이용하지요. 2023년 한 해만 해도 6백만 명이 패밀리서치 계정에 등록했는데, 뜻밖에도 그중 97퍼센트는 우리 교회 회원이 아니었습니다. 작년에 열린 루츠테크 대회에는 243개 국가와 자치령에서 410만 명이 참석했는데, 대다수가 우리 교회 회원이 아니었습니다.

해밀턴 장로: 교회 회원 수가 1,700만 명에 불과한 우리가 인류의 가계도를 만들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꽤 대담한 발언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수백만에 달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의 도움으로 한 번에 한 가족씩 가계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기 성도들은 성전 의식을 행할 수 있고 조상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결속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 시대의 위대한 기적입니다. 우리는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권유합니다. 함께 와서 가계도에 들어갈 이름을 수집하며, 우리가 시공을 넘나들면서 이러한 가족 관계를 파악하고 문서화하는 일을 돕도록 말입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영이라 하는 것인가요?

해밀턴 장로: 실제로 엘리야가 와서 이 일의 열쇠를 맡겼습니다.(교리와 성약 110:13~15 참조) 그러나 벨슨 회장님은 우리가 종종 “엘리야의 영”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히 가족의 신성한 본질을 증거하는 성신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³ 그것을 보면서 영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강력한 감정입니다. 한 사람이 조상에 대해 더 많이 배우기 시작할 때마다 거의 매번 강한 영이 임합니다. 그것은 성신입니다. 성신의 증거는 인종, 정치적 경계, 언어의 경계를 초월합니다. 수백만의 사람이 패밀리서치를 방문하면서 이 영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우리와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 “왜 이 일을 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사람들은 보통 그 이유를 잘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조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고 싶었어요. 나도 가족의 일원이라는 것을 느끼고 싶어요.” 그들이 계속해서 패밀리서치를 찾는 것도 그들이 무언가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인류의 가계도를 만드는 일을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입니다.

가족 역사 사업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 주고 싶은가요?

해밀턴 장로: 이 일이 힘든 일이라는 선입견을 버리신다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사무적인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며, 즐거운 일입니다. 그 역사를 보면 그렇다는 것을 거듭해서 알 수 있습니다.

록우드 형제: 초기 성도들은 조상을 위해 침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엄청나게 기뻐하며 그 일을 어서 시작하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 성전이 세워진다는 소식을 들을 때 느끼는 기쁨을 목격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는 이 시대에 기쁨을 줍니다. 주님은 점점 더 많은 성전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이 기쁨을 선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주신 영감에 따라 개발된 기술을 통해 사람들이 전혀 없는 방식으로 자기 조상을 발견할 기회를 열어 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은 그분이 이 땅을 기쁨으로 가득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족 역사 사업은 가족 중에서 자신 말고 다른 사람이 가장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또는 그들이 이미 일을 마쳤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해밀턴 장로: 어떤 사람들은 “가족 역사”라는 말을 들으면 누가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누가 그 일을 잘할 것인지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귀를 닫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계보에 대한 큰 열정으로 그것을 찾고 그것에 대해 배우고 전문 기술을 습득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숙련된 가족 역사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다음 성전 방문에 가져갈 가족 이름 하나만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쁜 부모, 은퇴한 분들, 청소년, 심지어 초등학교 어린이들까지도 가족 역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방식으로든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모든 사람이 필요합니다.



청소년과 청년 성인은 이 일을 어떻게 도울 수 있나요?

해밀턴 장로: 가족 역사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놀랍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님은 2011년 연차 대회에서 교회의 청소년들에게 이 일에 참여하도록 권유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손가락은 ... 문자를 주고받고 트위터를 하[며] ... 주님의 사업을 진척시키고 가속화하도록 훈련되었습니다.”⁴ 대부분의 젊은이는 디지털 기술에 친숙합니다. 그들은 가족 역사의 문제 해결 방식을 좋아하는데, 그것은 일종의 보물찾기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할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아내야 합니다.

넬슨 회장님은 청소년들과 우리 모두에게 이스라엘의 집합은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대업이라고 가르쳤습니다.⁵ 청소년과 청년 성인들은 이 기회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이 기회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기술에 익숙한 이들이 전혀 없는 성전 건축, 전혀 없는 기술, 전혀 없는 수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대한 융합의 일부가 되는 것을 보면 놀랍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성전을 사랑하며 구주를 사랑합니다. 그것이 이 집합의 위대한 나타내심 중 하나입니다. 즉, 자라나는 세대가 출현하여 이 일에 참여하는 것 말입니다.

록우드 형제: 어린아이들이 침례 성약을 준비하고 나중에 성전에 가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은 성약의 자녀로서 이스라엘의 집합을 돕는 일에 참여할 수 있음을 배우며, 그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더 강한 제자가 됩니다.⁶ 이는 젊은이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에 대한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의[로] 무장하여”(니파이전서 14:14) 진정 이 시대에 태어나도록 주님께서 남겨 두셨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가족 역사 사업은 여러분의 가족에게 어떤 축복을 주었나요?

해밀턴 장로: 우리는 제 프랑스인 고조부 아돌프 퀴니의 조상을 찾는 작업을 수십 년 동안 해 오다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찾아봐도 우리는 그분의 부모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패밀리서치와 협력하는 몇몇 프랑스 계보학자들이 우리의 기록을 살펴보고 그들의 기술과 현지 지식을 활용하여 아돌프 할아버지의 부모와 조부모까지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성전에서 그분들을 위한 의식을 모두 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금은 그분들의 대가족과 후손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가계도에서 이 부분에 속한 수많은 사람에게 문이 열렸습니다. 이 축복은 패밀리서치와 그곳의 헌신적이고 경험이 많은 조사자와 상담자의 네트워크를 통해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유형의 도움은 교회 회원이든 아니든 패밀리서치 이용자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일에서 어떤 개선점이 있었는가?

록우드 형제: 오랜 세월,

교회나 정부는 종이로 된 문서를 보관했습니다. 서양의 기록은 대부분 서기 1500~1600년대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이크로필름으로 기록을 촬영하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의 일이며, 2006년 말쯤에 우리는 260만 개의 마이크로필름을 소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미지들을 디지털화하기로 했는데, 이는 수십 년에 걸쳐 진행해야 할 프로젝트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신성한 영감으로 그 시간을 극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신기술이 개발되어 2022년에 디지털화를 완료했습니다. 그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은 마이크로필름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던 문서를 이제는 패밀리서치를 통해 인터넷에서 대부분 열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컴퓨터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판도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패밀리서치는 위키백과처럼 누구나 열람과 편집이 가능한 공개 가계도로 전환하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변경 사항을 주의 깊게 추적하고, 일종의 크라우드 소스 접근 방식을 통해 인류의 가계도를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며, 오류가 덜 나도록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밀턴 장로: 오늘날 수십억의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교회는 모바일 앱을 개발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패밀리서치를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추억 앱, 패밀리 트리 앱, 그리고 Get Involved[참여하기] 앱은 모두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실제로 주님의 일을 진전시킬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록우드 형제: 우리는 지금 수많은 성전이 세워지고 수많은 데이터를 대중에 수집하는 기적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데이터를 정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을 통해 데이터를 검색하고 어떤 언어로든 번역할 수 있게 해 주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밀턴 장로: 오늘날 우리는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성전과 이름, 기술이 모두 주님의 손에 의해 하나로 합쳐져서 우리가 기꺼이 성전 사업을 행하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위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러한 성취의 모습 중 하나입니다.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을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에 참여하고 계시며,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그분께서 그 일을 지시하시기 때문입니다. ■

주

1. 러셀 엠 넬슨, “성전과 여러분의 영적인 기초”, 『리아호나』, 2021년 11월호, 93쪽.
2. 러셀 엠 넬슨, 성전 지도자 세미나에서 전한 말씀, 2019년 10월 15일; 또한 세라 제인 워버, “베드나 장로: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성전 운영이 중단되더라도 성전의 축복은 언제나 누릴 수 있습니다”(온라인 전용 기사), 『리아호나』, 2020년(“코로나-19: 신앙의 메시지”), 복음 자료실.
3. 러셀 엠 넬슨, “새로운 추수의 시기”, 『성도의 빛』, 1998년 7월호, 34쪽 참조.
4.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자녀들의 마음은 돌이켜질 것입니다”,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26쪽.
5. 러셀 엠 넬슨, “이스라엘 시온 군대”(전 세계 청소년 영적 모임, 2018년 6월 3일), 복음 자료실 참조.
6. 넬슨 회장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3가지 식별자는 “하나님의 자녀, 성약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가르쳤다. (“영원을 위한 선택”[전 세계 청년 성인 영적 모임, 2022년 5월 15일], 복음 자료실)





사람들에게 성전에 대해 뭐라고 말해야 할까?

제시카 앤 로런스
교회 잡지

성전에 대해 어떻게 논하는가가 중요하다.

나는 선교 사업을 준비하며 자신을 위한 엔다우먼트를 받게 되었을 때 느꼈던 그 기쁨을 기억한다. 그리고 몇몇 가족이 나에게 처음으로 엔다우먼트 의식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은근한 주의를 주었을 때는 설레던 마음이 걱정과 혼란스러움으로 변했던 것도 생각한다.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내가 좋은 경험을 하도록 진심으로 도우려는 마음 때문이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성전에서 생소한 경험을 하게 될 것에 대해 주의를 주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고무적이고 올바른 방식으로 성전을 준비하도록 도와주었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처음으로 성전에 갈 준비를 하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고려해야 할 4가지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자 한다.

1. 의견보다는 진리에 초점을 둔다

사랑하는 누군가가 처음으로 성전 의식에 참여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기 경험을 그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어 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전하려는 것이 자신의 의견보다 복음 진리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전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갖게 되면, 그들은 구주께 집중하게 되어, 자신들이 성전 의식에 참여했을 때 특정



방식의 느낌을 받아야만 한다는 생각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러셀 엠 넬슨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훌륭한 영감은 훌륭한 정보를 기초로 [옵니다].”¹

여러분은 성전 준비 과정, 경전, temples.ChurchofJesusChrist.org에서 성전에 대한 올바른 정보(심지어 사진까지!)를 나눌 수 있다. 때로는 무엇을 이야기해 주어야 할지 고민스러울 때도 있지만, 우리의 의견보다 올바른 자료에 의지한다면 많은 정보를 주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성전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줄 때, 우리는 성전에 대해 더 올바른 이해와 관점을 제공하게 된다. 의견은 대개 우리의 감정과 경험에 집중되어 있지만, 복음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성전에서 자신만의 경험을 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2. 자신이 사용하는 어휘들을 생각해 본다

성전에 대한 설명 중 어떤 것이 마음에 와닿았는가? 예를 들어, 넬슨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성전에서의 봉사와 예배는 여러분이 해의 왕국의 방식으로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² 그리고 토마스 에스 몬슨(1927~2018)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모든 성전은 세상을 비추는 등대[입니다].”³

우리는 성전 경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깨달음을 주는 어휘를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성전에 대해 (“괴상하다” 또는 “이상하다” 등의) 부정적인 묘사를 피하고, 그리스도에 중심을 둔 (“평안”이나 “희망” 등의) 긍정적인 묘사를 택할 수 있다.

나는 성전 내부에서 본 많은 아름다운 그림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자주 그런 그림들을 성전에 갈 준비를 하는 친구나 가족에게 소개해 주기도 한다.⁴ 여러분은 그런 그림을 볼 때 어떤 느낌이나 감정, 단어가 떠오르는가? 성전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고양된 느낌을 주려고 노력한다.

3. 복음 자료에서 답을 찾는다

우리는 성전에 대한 사랑과 깊은 경외심 때문에 성전을 언급할 때 쉽게 두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당황해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될 수도 있다. 나 역시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하는 친구와 가족에게 그것에 대해 말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문화에 얽매어 있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성전에서 봉사하고 성전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하면서, 나는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⁵

예를 들어, 우리는 “엔다우먼트란 말 그대로 ‘은사’”임을 알려 줄 수 있다.⁶ 성전 엔다우먼트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신성한 축복의 은사이며, 그 축복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주님의 목적과 가르침에 관한 더 큰 지식.
2.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든 일을 행할 힘.
3. 주님과 가족과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함으로써 받게 되는 신성한 인도와 보호.
4. 더 큰 희망과 위안과 화평.
5. 현세와 영원을 두고 약속된 축복들.”⁷

우리는 또한 성전에서 맺는 성약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다. 성전이 아름다운 집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많은 약속을 맺음으로써 그분께 더 가까워지고 그분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이다. 그러한 성약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순종의 법.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힘써 노력하는 것이 포함된다.
- 희생의 법. 이것은 주님의 일을 돕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하고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 복음의 법.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때 가르치셨던 더 높은 율법이다.



성전에 관한 영감 어린 가르침

사람들에게 성전 사업을 설명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temples.ChurchofJesusChrist.org에서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이 사이트에는 엔다우먼트, 가먼트, 성약 등의 주제에 관한 질문의 답이 나와 있다.

교회 지도자들이 전한 다음 메시지들이 성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토마스 에스 몬슨, “거룩한 성전은 세상을 비추는 등대입니다”, 2011년 4월 연차 대회.
- 보이드 케이 패커, “성전으로 오십시오”, 『리아호나』, 2007년 10월호.
- 러셀 엠 넬슨, “성전 축복을 위한 개인적인 준비”, 2001년 4월 연차 대회.



이탈리아 로마 성전 사진: 코디 벨과 매튜 리이어

- 순결의 법.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결혼한 사람과만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 헌납의 법. 이것은 지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신의 시간과 재능, 그리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을 의미한다.”⁸

우리는 성전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나누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환영받는다느 느낌을 받고 자신이 성전 의식에 참여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끼도록 돕는다. 우리는 그들이 성전 성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고대하도록 도울 수 있다.

4. 긍정적인 경험을 들려준다

내가 성전에 대해 가장 많이 알게 된 바는 올바른 정보에만 의지한다면 성전은 전혀 이상한 곳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실, 성전에서 받는 정보와 축복은 전부는 아닐지라도 대부분은 우리가 매일 복음에서 배우는 익숙한 것들이다.

나는 여러 경험을 통해 두려움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성전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리거나 성전에 대해 은밀한 경고나 걱정을 담아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대적은 성전의 아름다움을 왜곡할 더 큰 힘을 얻게 된다. 우리는 “그냥 계속 다니다 보면 언젠가는 나아질 거야”라며 대화를 짧게 끊는 대신, 성전에 다니면서 얻은 긍정적인 경험을 들려줄 수 있다.

자신이 성전에 관한 질문에 대답하기를 두려워한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성전에 대해 더 공부하라는 주님의 권유일 수도 있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성전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되기를 바라셨다.

넬슨 회장의 다음 말씀을 기억한다. “성전에서 성약을 맺고 필수적인 의식들을 받으며 그곳에서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노력한다면, 다른 종류의 예배로는 받을 수 없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할 것입니다.”⁹ 우리가 주님의 집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이야기할수록 성전 의식에 참여하도록 서로를 더욱더 격려하게 되고, 그 축복을 우리 삶에 불러들이게 될 것이다. ■

주

1. 러셀 엠 넬슨, “교회를 위한 계시와 우리 삶을 위한 계시”, 『리아호나』, 2018년 5월호, 94쪽.
2. 러셀 엠 넬슨, “해의 왕국의 방식으로 생각하십시오!”, 『리아호나』, 2023년 11월호, 119쪽.
3. 토마스 에스 몬슨, “거룩한 성전은 세상을 비추는 등대입니다”,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94쪽.
4. “성전 사진”, ChurchofJesusChrist.org 참조.
5. 적절한 방식으로 성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 관한 지침을 더 알고 싶다면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모든 필요한 것을 얻도록 준비되어”, 『리아호나』, 2019년 5월호, 101~104쪽을 참조한다.
6. “성전 엔다우먼트에 관하여”, ChurchofJesusChrist.org.
7. “성전 엔다우먼트에 관하여”, ChurchofJesusChrist.org.
8. “성전 엔다우먼트에 관하여”, ChurchofJesusChrist.org.
9. 러셀 엠 넬슨, “답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리아호나』, 2023년 5월 128쪽.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지식

이냐에 레안드로, 브라질 상파울루

가족이 영원할 수 있다는 지식은 내 삶을 영원히 바꿔 놓았다.

코드를 스캔하여
더 읽기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네요

돈 에스 캔들랜드, 미국 캘리포니아주

사람들이 애창하는 한 찬송가 가사는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을 내 어머니에게 상기시켜 주었다.

이제 고인이 되신 내 어머니 도로시 캔들랜드 우드럽은 어느 날 오후 캐나다 서스캐처원주 리자이나로 가던 중 비행기를 놓치셨다. 그래서 어머니는 미국 콜로라도주와 캐나다 앨버타주 깎여진 경유하는 항공편으로 노선을 변경하셨다. 도착은 자정을 넘겨야 가능할 것이었다. 어머니는 좌절감을 느끼며 그 여정을 시작하셨다.

두 번째 비행은 혼잡하고 소란스러웠다. 어머니가 일을 좀 해 보려고 할 때쯤 통로 건너편에 있던 한 어린 소녀가 울기 시작했다. 그 소녀는 어린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에게 짜증을 부렸다. 그 아이의 아빠는 다섯 살쯤 된 다른 아이와 함께 우리 어머니 앞줄에 앉아 있었다.

소녀의 엄마는 딸에게 부드럽게 말했지만, 아이의 울음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우리 어머니는 나중에 우리 가족과 그 이야기를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가족은 확실히 아이들의 여행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지.” 그리고 그다음에 일어난 배움의 기회에 대해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침내 그 엄마는 울고 있는 딸을 뒤쪽 화장실로 데려갔어. 얼마 후에 그녀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는 어린 소녀와 함께 자리로 돌아왔지. 이제 조용해져서 고마운 마음이 들더구나. 그 엄마는 자리에 앉아서 딸을 팔에 안고 부드럽게 앞뒤로 흔들어 주었어. 그때 그녀가 조용히 ‘난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

나는 그 노래를 알아듣고 깜짝 놀라서 일을 놓고 고개를 들었어. 그 가족이 다시 보이더구나. 그 엄마가 노래를 마쳤을 때, 나는 내 손을 그녀 어깨에 얹고 이렇게 말했어.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네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 ‘일곱 살 난 제 아들이 가장 좋아하던 노래였어요. 우리는 그 아이를 몬테나주에 있는 가족 묘지로 데려가는 중이에요. 어제 끔찍한 사고로 그 아이를 잃었거든요. 우리 모두 그 아이가 너무 그리워요.’

부끄러움이 나를 덮쳐 왔어. 나는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었는지에겐 무심한 채 그 사랑스러운 가족을 판단하고 있었던 거야. 그 노래의 가사는 비록 그들이 후기 성도가 아니었다라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손을 내밀었어야 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었다.

내 마음은 겸손해졌어. 남은 여정 내내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느낌과 감정, 경험을 나누었다. 그리고 우리는 헤어졌지만 그 뒤로 오랜 세월 편지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는 좋은 친구가 되었지.” ■

주
1. “난 하나님의 자녀”, 「찬송가」, 187장.





정직함을 통해 받은 축복

솔로몬 올라다포 소놀라, 나이지리아 라고스

여분의 돈을 갖고 싶은 유혹이 들었지만, 감독님의 권고가 떠올랐다.

2012년에 나는 실직자가 되었다. 일자리를 찾으려는 내 노력은 헛수고로 끝났다. 결국 나는 현세적인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나이지리아 화폐로 약 28달러를 대출받아야 했다.

그 금액은 현지 은행의 내 계좌로 송금되었다. 송금이 되었다는 알림이 오자, 나는 은행으로 갔다. 나는 은행 전표를 작성해서 계산원에게 건넸다. 계산원은 컴퓨터에서 거래 명세를 확인했고 정중하게 자리에 앉으라고 말했다.

약 5분 후, 그녀가 나를 부르더니 현금 계수기를 이용해 돈을 썼다. 그리고 그녀는 나에게 28달러가 아니라 280달러를 건네주었다! 당황한 나는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며 잠시 멈췄다.

내 망설임을 눈치챈 계산원이 말했다. “이제 다음 고객을 도와드려야 해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252달러를 더 주셨어요.” 나는 초과 지급된 돈을 건넸다.

그녀는 무척 고마워했다. 그녀는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자리를 떴다면 자신이 잘못 내 준 추가 금액은 자신의 월급에서 변제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녀에게 인사를 하고 은행을 나오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런 못난이. 돌려준 돈으로 밀린 청구서

를 갚았으면 도움이 됐을 텐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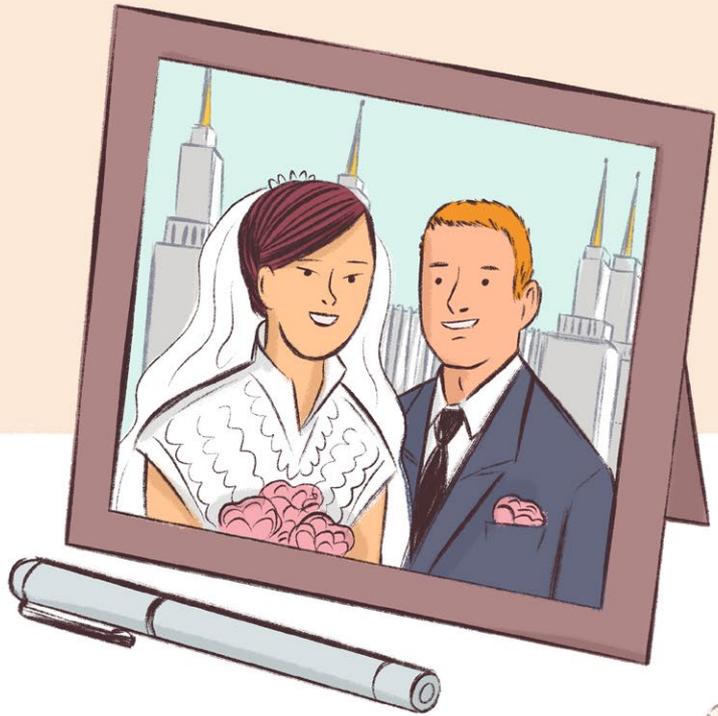
하지만 그때 감독님의 권고가 떠올랐다. 감독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려움을 겪거나 유혹을 받을 때마다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를 부르십시오.”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의 구속주”,¹ “찬양해 여호와와 대화한 사람”,² “난 하나님의 자녀”³를 부르기 시작했다.

몇 주 후, 석 달 전에 창고 책임자 자리에 지원해서 면접을 보았던 한 기관으로부터 편지가 왔다. 내 합격 소식을 담은 편지였다. 나는 새로 구한 직장 덕분에 밀린 청구서를 해결하고 현세적인 필요를 해결할 수 있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누가복음 16:10) 나는 끈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결함이 풍성한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해 준다는 것을 간증한다. ■

주

1. “이스라엘 구속주”, 『찬송가』, 27장.
2. “찬양해 여호와와 대화한 사람”, 『찬송가』, 18장.
3. “난 하나님의 자녀”, 『찬송가』, 187장.



사진과 책과 침례

브렌다 호사플룩 웰스,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

사소한 행동이 불러온 큰 변화에 감사드린다.

우리 학군은 적어도 일 년에 한 번 환경 감사관의 방문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감사관은 우호적이며 보통 소소한 이야기를 나눈다. 라이언 페스텔도 그런 경우였다. 라이언은 내 사무실에서 우리 가족 사진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가 내 사무실에 올 때마다 우리는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한번은 내 사무실에 온 라이언이 워싱턴 D.C. 성전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찍은 새로운 결혼사진을 발견한 적이 있다. 우리의 대화는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물몬경으로 이어졌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와 아내도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선생님의 자녀에게 준 것을 저도 제 자녀들에게 주고 싶군요.”

라이언의 다음 방문을 대비해서, 나는 물몬경에 간증을 적어 내 사무실에 가져다 놓았다. 하지만 그다음 해에는 다른 환경 감사관이 왔다. 라이언은 이제 그 부서 소속이 아니었다. 나는 실망이 컸지만,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은 영감이 들 때를 위해 그 책을 사무실에 보관해 두었다.

그런데 일 년 후, 라이언에게서 방문 일정을 잡아 달라는 이메일이 왔다. 그가 예전 자리로 복귀한 것이다. 그가 내 사무실을 찾았을 때, 우리의 대화 주제는

마침내 교회로 옮겨갔다. 내가 라이언에게 물몬경을 건네자, 그는 신이 나서 책장을 넘겼다.

몇 달 후, 나는 고등평의회에서 말씀 임무를 맡은 남편 빌과 함께 웨스트버지니아주 매닝턴에서 모임에 참석했는데, 그곳은 라이언의 고향이었다. 나중에 예배당에 있던 한 자매가 내게 라이언을 아는지, 내가 그에게 물몬경을 주었는지를 물어 왔다. 그녀는 라이언의 아내인 스테파니였다.

스테파니는 라이언과 함께 전날 밤 침례를 받을 계획이었으나 라이언이 몸이 아팠다고 말했다. 침례식이 미뤄진 것은 우리에게겐 오히려 잘 된 일이었다! 빌과 나는 3주 후에 다시 계획된 그들의 침례식에 참석할 수 있었다. 라이언은 침례식에서 아내가 선교사들에게 연락하기 전까지는 내가 준 물몬경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었다고 말했다.

그들의 개종에서 내가 맡은 역할은 내 사무실에 성전 사진을 걸어 놓은 것에서 시작되었다. 성전 사진이 대화로 이어졌고, 그 대화가 물몬경으로 이어졌다.

각각의 행동은 별것 아니었지만, 그 결과는 컸다.(교리와 성약 64:33 참조) 내 작은 행동이 커다란 변화를 일으켜 누군가를 구주께로 이끌었다는 것에 감사해서 가슴이 벅차오른다. ■



청년 성인

영적인 경험이 기대했던 것과 다를 때



성전 준비반 교사들의 조언은 내가 영을 느끼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

애비 라킨스
교회 잡지

동

생이 선교 사업을 떠나기 며칠 전, 나는 동생과 함께 엔다우먼트를 받았다. 나는 동생과 함께 성전에 가게 되어 기뻐고, 성약의 길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날 나는 여러 가지 감정으로 마음이 복잡했다. 여름이 끝나 갈 무렵이었고, 힘든 새 학기가 다가오고 있었다. 대학으로 돌아가고, 가족을 떠나고, 동생과 작별 인사를 할 생각을 하니 갑자기 마음이 편치 않았다.

엔다우먼트 의식은 아름다웠지만, 받아들여야 할 것이 너무 많았다. 나는 의식을 거의 이해하지 못했고 의식이 끝나자마자 바로 떠나고 싶었다.

동생은 나와는 다른 경험을 했다. 해의 왕국실에서 그 아이는 침착하고 호기심 어린 마음으로 부모님께 엔다우먼트에 대해 여쭙어보았고,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해한 것 같았다. 그러는 동안 나는 침묵 속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내 경험이 동생의 경험과 아주 다르다는 사실에 좌절감과 당혹감을 느끼며 눈물을 참았던 기억이 난다.

내가 바라던 경험을 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잠시 씩씩한 기분마저 들려고 했다. 하지만 그때, 성전 준비반 교사들이 말해 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구체적인 내용이 떠올랐다.

1. 나는 첫 번째 엔다우먼트 의식에서 일어난 일을 모두 이해하지는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 순간에 그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성전 안에서 느끼는 평화로운 느낌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2. 나는 영적으로 지치고 압도되는 느낌으로 성전을 떠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괜찮다.

그들의 현명한 말은 소용돌이치는 내 생각을 가라앉혔고, 여러 해 동안 내 마음속에 머물렀다. 나는 성전 안팎에서 경험하는 다른 영적 경험에 대한 기대치를 생각할 때도 그와 같은 조언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대치를 조정한다

지금은 성전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즐겁고 엔다우먼트에 대한 이해가 지난 몇 년 동안 커졌다고 말할 수 있어서 기쁘다. 하지만 엔다우먼트를 받거나 선교 사업을 나가는 것과 같은 영적인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기대를 품는 마음도 이해는 간다. 심지어 나는 성전에 가거나 경전을 읽을 때마다 중요한 “영적인 경험”을 기대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항상 한다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나는 성전에 가서 깨달음을 얻고 고양될 때도 있지만, 집중하거나 깨어 있기가 어려울 때도 있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게리 이 스티븐슨 장로는 최근에 이렇게 간증했다. “영적인 문제는 강요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영을 초대하는 태도와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자신을 준비시킬 수 있지만, 영감이 오는 방법과 시기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¹

어떤 이유에서든 계시를 받거나 영을 느끼는 데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고 신앙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던 몇 가지를 다음과 같이 말해 주고 싶다.

영은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한다는 것을 기억한다

다른 사람의 영적인 경험에 대해 듣는 것이 영감을 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다르면 실망감을 느끼기도 쉽다.

나는 성전에 갔을 때의 경험을 동생의 경험과 비교하면서 낙담했다. 그 첫 번째 경험이 성전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나는 그날 동생과 내가 느끼고 이해한 것의 차이를 앞으로 신경 쓰지 않겠다고 의식적으로 결심해야 했다.

여러분은 영을 느낄 때 울고 싶을 수도 있고, 그러지 않기를 바랄 수도 있다! 아마도 계시가 담긴 꿈을 꾸거나 시현을 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몹시 부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다. 어쩌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한 적이 없을 수도 있다.(교리와 성약 9:8 참조) 아니면 여러분이 영을 느끼지 못한 상황인데 누군가가 영을 느꼈다고 말할 수도 있다.

좋은 소식은, 영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이다. 여러분의 방식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해서, 그 방식이 틀린 것이거나 영이 여러분과 소통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도움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할 때, 우리는 영이 우리와 교통하는 방식을 인식하고 개인적인 영적 경험을 더욱 온전히 누리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삶에서 [성신]의 영향력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고 그 영향력을 ... 따르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신성한 책임입니다.”²

영적 경험을 기록한다

영의 영향력을 인식하는 한 가지 방법은 자신의 영적 경험을 기록하는 것이다. 실제 일지든, 전자 기록이나 음성 녹음이든, 긍정적인 경험을 기록하는 것은 자신이 느낀 좋은 점을 기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이 자신에게 말하는 방식을 더 잘 인식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화평, 감사, 영감, 기쁨을 느끼는 순간을 떠올려 본다. 칠십인 정원회의 크레이그 시

크리스텐슨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성신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기쁨이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신으로 충만하다는 뜻입니다.[사도행전 13:52; 모사이야서 4:3 참조]”³

이렇게 하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영을 더 많이 느끼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의 진지한 대화를 최우선으로 삼는다

우리는 기적⁴과 개인적인 계시 둘 다를 구하고 기대하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마태복음 7:7~8 참조), 둘 중 어느 것도 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특히 낙담할 수 있다. 때로 나는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계속 하나님께 질문해야 하는지 의문을 품기도 했다. 이런 마음가짐이 되면 그분을 대하는 내 태도는 불안해지고 까다로워진다.

그러나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주께 권고하려 하지 말고 그의 손에서 권고를 얻기 힘쓰라.”(야곱서 4:10) 나는 계시를 기도의

유일한 동기로 여기는 대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진심 어린 소통을 우선시할 때 변화를 느낀다. 나는 그분께 내 심정을 설명하고, 내 고민을 말씀드리고, 감사를 표한 다음, 나에게 부족한 것을 온유하게 간구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가 설명했듯이, 그분을 “거대한 자동판매기”⁵로 바라보지 않을 때 나는 그분과 실제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낀다.

항상 즉각적이고 명확한 응답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그분께서 항상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나는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지침이 되는 원리들을 따른다

영과 개인적인 계시를 구할 때는 올바른 틀 안에서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티븐슨 장로는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를 인용하며 이렇게 말했다. “삶에서 성신의 인도를 받으려면 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노력에는 간절히 기도하고 꾸준히 경전을 공부하는 한편 여러분이 맺은 성약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매주 합당하게 성찬을 취하는 것이 포함됩니다.”[『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101쪽]⁶

그런 후 그는 “영의 속삭임을 초대하고 인식”하는 데 지침이 되는 다음 4가지 원리를 추가로 제시했다.

1. **거룩한 곳에 선다:** “우리의 성전과 가정은 헌납된 장소들 중에서도 가장 성스러운 곳입니다.”⁷
2.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 선다:** “성신을 느끼고자 한다면, 성신이 쉽게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십시오.”⁸

“주께 권고하려 하지
말고, 그의 손에서
권고를 얻기 힘쓰라.”
야곱서 4:10



3. 거룩한 진리를 증거한다: “우리가 우리의 음성으로 간증을 나눌 때 보혜사는 항상 자신의 음성을 나누어 줍니다.”⁹

4. 성신에 귀 기울인다: “성신은 … 조용하고 미세하게 말합니다. … 영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 조용하고 거룩한 장소를 찾으십시오.”¹⁰

비록 그것이 극적이거나 여러분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영은 여러분이 이런 일을 할 때 함께하고 인도해 줄 것이다.

새로운 시각

성전 준비반 교사들이 내게 상기시켜 주었듯이, 복음을, 혹은 내 경우에는 성전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 때로는 영적인 것을 추구할 때 약간 지칠 수도 있다. 이런 순간은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신과의 관계를 재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나는 내가 이런 느낌을 통해 속도를 늦추고, 신앙으로 행하며, 도움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했을 때, 영적인 경험에 대한 나의 기대는 불안 대신 믿음으로, 좌절 대신 안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순간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느낀다.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그 정도의 사랑이면 언제나 충분하다. ■

주

1. 게리 이 스티븐슨, “영의 속삭임”, 『리아호나』, 2023년 11월호, 45쪽.
2. 로널드 에이 래스벤드, “성령 인도하시어”, 『리아호나』, 2017년 5월호, 93쪽.
3. 크레이그 시 크리스티슨, “나의 기쁨같이 것처럼 훌륭하고 감미로운 것은 있을 수 없느니라”, 『리아호나』, 2023년 5월호, 46쪽.
4. 러셀 엠 넬슨, “영적인 가속도의 힘”, 『리아호나』, 2022년 5월호, 99~100쪽.
5.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리아호나』, 2022년 5월호 78쪽.
6. 게리 이 스티븐슨, “영의 속삭임”, 42쪽.
7. 게리 이 스티븐슨, “영의 속삭임”, 43쪽.
8. 게리 이 스티븐슨, “영의 속삭임”, 44쪽.
9. 게리 이 스티븐슨, “영의 속삭임”, 44쪽.
10. 게리 이 스티븐슨, “영의 속삭임”, 44, 45쪽.



세상의 어둠 대신

나는 영적인 경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놓치고 있던
중요한 축복을 떠올렸다.

데이비드 다네프

예전에 나는 지금과는 아주 다른 사람이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인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지만,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적이 없었다. 복음 진리가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

불가리아에서, 나는 몇 안 되는 교회 회원 중 한 명이다. 나는 매일
수많은 세속적인 행위들과 영향력들에 둘러싸여 있다. 이곳에는 훌륭한
도덕이나 가치관을 갖추지 않은 젊은이들이 많아서, 때로 세상이
어둡게 느껴질 수 있다.

몇 년 전, 17살이었던 나는 우울했고 목표도 없었다. 나는 선한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았으며 선한 일을 하지도 않았다. 어느 날,
아버지는 내가 인근 국가에서 열리는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대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등록했다고 말씀하셨다. 가고 싶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마지못해 갔다.

놀랍게도, 그 대회에서 했던 영적인 경험들은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다.

FSY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 즉 세상과 다르게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실제로 보았다. 이 충실한 젊은이들은
모두 내가 평소 주변에서 접했던 부정적인 영향력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나는 이 제자들이 지닌 빛을 실제로 본 것 같았다. 나는
매일 선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경전을 공부하고, 복음을 자세히
배우고,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를 더 잘 알게 되면서 매우 강한 영을
느꼈다.

변화를 이룸

나는 내 행동을 바꾸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삶에
가져다줄 수 있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집에 돌아온 후, 나는 대회 동안 느꼈던 영광의 교감을 잃고 싶지

복음의 빛을 선택함

않았기에 복음 안에서 새로 찾은 기초를 굳건히 유지하고 영을 계속 동반하는 데 필요한 일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처음에는 변화하는 일이 조금 어려웠다. 나는 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그만두어야 했다. 또, 몇 가지 나쁜 습관을 버리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교회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런 결정은 내 삶을 선으로 채우는 데 도움이 되었다. 영과 지속적으로 교감하는 데 도움이 된 것은 매일 경전을, 특히 몰몬경을 공부하는 시간을 따로 마련한 것이다.

복음의 축복을 상기함

경전의 가르침은 내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상기시켜 준다. 특히 이곳 불가리아에 회원이 거의 없어 신앙에 외로움을 느낄 때, 나는 고대 선지자들의 진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더욱 깊게 한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 하나는 모로나이서 10장 32절이다.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모든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거부하라. 너희가 만일 모든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거부하고, 너희의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으면, 그러면 그의 은혜가 너희에게 족하니, 그의 은혜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될지라.”

이런 성구들은 복음이 주는 빛을 상기시켜 주며,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나를 강하게 해 준다. 경전은 언제나 내 신앙의 기초를 강화해 준다.

지금 나는 선교사로 봉사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최근에 제1형 당뇨병 진단을 받는 것과 같은) 여전히 예상하지 못한 일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영적인 습관을 우선에 두면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느끼는 데 도움이 된다.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은 최근에 “해의 왕국의 방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영적인 마인드로 생각한다”라는 의미임을 일깨워 주셨다.¹

매일 영을 동반하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면 해의 왕국의 방식, 즉 영적인 마인드로 생각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하셨을 일을 생각할 때 나 자신이 좀 더 그분을 닮아 가는 것을 느꼈다. 영을 동반하면 희망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을 따르기로 선택한 모든 사람을 위해 마련하신 축복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된다.

빛을 붙들

때때로 모든 게 어렵게 느껴지는 사악한 세상에서 사는 것은 힘들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닌 밝고 대조적인 따뜻함과 빛을 더 잘 깨닫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나는 수년 동안 내 삶에서 이 놀라운 축복의 중요성을 놓치고 있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영적인 경험들에 정말 감사드린다. 왜냐하면 지금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복음의 빛과 기쁨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하고 매일 몰몬경을 공부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훨씬 쉬워질 것임을 간증한다. 여러분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보기 시작할 것이며, 주님의 도움으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

글쓴이는 불가리아 바르나에 산다.

주

1. 러셀 엠 넬슨, “해의 왕국의 방식으로 생각하십시오!”, 『리아호나』, 2023년 11월호, 118쪽.





선교 사업 중인 자녀에게 여러분의 지지를 전달하는 방법

교회 지도자들이 제시하는 다음 원리는 선교사 자녀를 지지하고자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런던 브림홀
교회 잡지

봉 사 선교사로 봉사하든, 복음 전도 선교사로 봉사하든 자녀가 선교 사업을 나설 때 부모는 만감이 교차한다. 설렘, 슬픔, 자부심, 걱정 등의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올 수도 있다. 여러분의 자녀도 선교사로서 때로 낙담하거나 실망하기도 하겠지만 그들은 기쁨과 사랑과 희망을 느끼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부모와 가족으로서 선교사 자녀와 대화할 때 그들을 고양하고 강화할 특별한 기회를 얻게 된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의사소통에 참여하기 위한 몇 가지 원리를 이해하면 선교사의 부모뿐만 아니라 친척, 친구, 지도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모든 하늘 아버지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여 그에 따른 모든 축복을 받도록 선택할 기회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을 상기시켜 준다

선교사 자녀에게 본인이 하도록 부름받은 위대한 대업을 상기시켜 준다. 리셀 엠 벨슨 회장은 이 성스러운 일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모든 하늘 아버지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여 그에 따른 모든 축복을 받도록 선택할 기회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

여러분은 지구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스라엘의 집합을 돕도록 이 땅에 보내졌습니다. 지금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¹

선교사들은 그들의 목적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속죄를 믿는 신앙, 회개, 침례, 성신의 은사,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것을 통해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도움으로써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록

인도하는 것”임을 배운다.²

자녀가 자신의 신성한 정체성을 기억하도록 도와준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그들에게 맡기셨기에 이 시대에 이곳에 보내진 하나님의 자녀이다. 자녀가 자신이 받은 은사를 활용하여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삶을 축복할 수 있는지를 강조한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기 능력 밖의 일이라 생각되는 어떤 일을 해낼 수도 있다.

영적인 것에 집중한다

선교 사업에 대해 모든 면을 알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사소한 것이 대화를 주도하지 않도록 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자녀의

봉사에서 영적인 차원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선교사가 집으로 전화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들은 ‘아침으로 뭘 먹었니?’라는 질문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가족이나 개인은 누구이며, 어떤 토론을 가르치고 있니? 네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뭐니?’라는 질문으로 차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위험은 때때로 우리가 사소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영적인 것을 소홀히 하는 데 있습니다.”³

선교사 자녀에게 봉사하거나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관한 경험을 들려 달라고 유도함으로써 영적인 면에 초점을 맞춘다. 개인 기도나 가족 기도를 할 때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고려해 본다. 선교사 자녀가 그 주에 영이 어떤 식으로 감동을 전해 주었는지를 이야기할 때 주의 깊게 경청한다.

TV 프로그램이나 스포츠 경기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대신,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위로하셨으며, 가르쳐 주셨던 삶의 중요한 순간들을 들려준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여러분과 선교사 모두 영적으로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영적인 여정에 동참한다

여러분도 이스라엘을 집합시키는 일에 참여하려 한다면, 선교사 자녀와 나누는 대화는 축복이 될 것이다. 본부 청년 회장으로 봉사했던 보니 에이치 코든 회장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선교사 자녀와] 나란히 걷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영적인 여정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

선교사 자녀가 하는 일에 동참하십시오. 공부하고,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둘 다 선교 사업에 약속된 축복을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코든 자매는 또한 다음과 같은 3가지를 제안했다.

- “경전 공부를 늘리고, 이메일을 통해 여러분의 통찰을 들려주세요.
- 성전 의식에 참여하여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데려가는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십시오.
- 복음을 나누는 기쁨을 함께 발견할 수 있도록 자신만의 선교사 경험을 추구하십시오.”⁴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 영적 여정에 동참하기를 선택하든,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도우려 노력한다면 여러분의 기쁨은 더욱 커질 것이다.

선교사 자녀와 대화할 때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한다. 그분은 여러분이 선교사 자녀에게 언제 어떤 말을 해주어야 할지를 알도록 영감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선교사 자녀는 함께 배우고 성장하고 봉사하면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

주

1. 러셀 엠 벨스, “이스라엘 시온 군대”(전 세계 청소년 영적 모임, 2018년 6월 3일), 복음 자료실.
2.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나누기 안내서」(2023), 1쪽.
3. “Parents Can Best Support Their Missionaries by Having Spiritual Experiences with Them, 3 Leaders Say,” Church news story, Mar. 5, 2019, ChurchofJesusChrist.org.
4. “Parents Can Best Support Their Missionaries,” ChurchofJesusChrist.org.

더 알아보기

구주께서는 사랑하시고, 나누시고, 권유하셨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ChurchofJesusChrist.org/serve/share에서 “간단한 방법으로 사랑하고 나누고 권유하라” 동영상을 시청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앙의 중심



히브리어 기록에서 교차대구법은 단어 또는 개념을 제시한 후 역순으로 반복하는 시적 구조이며, 메시지의 초점이자 가장 중요한 지점은 그 기록의 한가운데에 위치한다. 후반부에는 반복이 고조되어 주요 메시지를 강조한다. 엘마서 36장에는 이 패턴의 아름다움을 보여 주는 예가 나온다.

계명을 지킬진대(1절)

그가 정녕 그들을 ... 건지셨느니라(2절)

그 시련과 그 곤경과 그 고난 중에 받들어 주심(3절)

내 스스로[가] ... 아니라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아는 것이니라(4절)

저주받은 영혼의 고통(16절)

예수 그리스도[를] ... 기억하였느니라(17절)

내가 ... 부르짖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18절)

고통만큼이나 심히 큰 기쁨(20절)

내가 가진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느니라(26절)

온갖 시험과 곤경하에서와, 또한 온갖 고난 중에 받들어 주심(27절)

그가 ... 나를 건지시리라(27절)

계명을 지킬진대(30절)

이 교차대구법의 예에서 구주께서 중심에 계심을 주목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지 스코트(1928~2015) 장로는 우리 삶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둘 때 오는 축복에 대해 이렇게 가르쳤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의 중심에 둘 때, 진정으로 지속되는 행복과 더불어 힘과 용기, 그리고 가장 어려운 고난을 극복할 능력이 주어질 것입니다.”¹

우리는 구주를 믿는 신앙이 있으면 영원히 축복받을 것임을 안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신앙을 갖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는지를 잊어버리곤 한다. 엘마서 36장은 그 안에 나오는 교차대구법을 통해 신앙의 힘과 그것이 모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지를 보여 준다.

『와서 나를 따르라』의 8월 공과에 포함된 이 성구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어떻게 우리에게 힘을 주는지를 보여 준다.

그분은 우리를 구하실 것이다

우리가 해로운 생각이나 느낌, 또는 상황에 사로잡힐 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제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한 이 청년들의 신앙이었으니, 그들은 젊고 그들의 마음은 굳건하며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도다… .

또 보소서, 우리가 또다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견지심을 입었으니,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복이 있음은, 보소서, 우리를 견지신 … 이가 그이심이니이다.”

앨마서 57:27, 35

우리는 답을 구하고 찾을 수 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모르는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질 때 답을 찾을 수 있다.

“알려지지 않고 있는 비밀이 많이 있어, 하나님 자신 외에는 아무도 이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알고자 부지런히 하나님께 여쭙었던 한 가지 일을 내게 보여 주노니.”

앨마서 40:3

우리의 영혼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우리 생각에서 어두운 구름을 거두고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밝힐 수 있다.

“그들은 … 그 겸손한 중에 점점 더 강하여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안에서 점점 더 굳건하여져서 그 영혼을 기쁨과 위로로 가득 채우기에 이르렀[더라.]”

힐라맨서 3:35

우리는 두려움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

우리에게 주님을 믿는 신앙이 있다면, 그분은 우리 삶의 힘든 시기에 우리를 지지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 비통하며 또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느니라.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쏟아내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 견져 … 주시기를 기도하였느니라.

…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그가 우리를 구하시리라는 확신을 주셨나니, 참으로 그는 우리의 영혼에 평강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큰 신앙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바라게 하셨느니라.”

앨마서 58:9~11

주

1. 리차드 지 스코트, “평안과 행복을 확실하게 해 주는 속죄”, 『리아호나』, 2006년 11월호, 41쪽.

와서 나를 따르라



앨마서 37장



의식적이고도 지속적인 노력의 힘

작고 단순하며 일관된 결정은 우리 삶의 진로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물방울의 힘을 생각해 보자.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는 점적 관개 시스템의 기능을 이야기하면서 작고 단순한 영적 자양분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했다. “꾸준히 떨어지는 물방울은 땅속 깊이 스며들어 토양의 수분 함량을 크게 늘리고 식물이 잘 자랄 수 있게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영적 자양분이라는 끊임없는 물방울을 수시로 집중 공급받는다면, 복음은 우리 영혼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단단하게 자리를 잡게 되어, 빼어나고 맛있는 열매를 생산할 것입니다.”¹

“[우리] 마음에 크나큰 변화”는(앨마서 5:14) 작고 일관된 결정의 산물일 수 있다. 매일 물문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누군가의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 친절한 행동을 하겠다는 결정은 하찮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작고 단순한 일로 큰 일이 이루어[진다].”(앨마서 37:6)

작은 물방울로 자양분을 공급받을 수도 있지만, 또한 그것 때문에 침식이 일어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삶에서 내리는 작은 결정들은 우리가 구주를 향해 성장하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간증을 약화시켜 그분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 주는 작은 행동을 계속 소홀히

하면 서서히 신앙이 흔들리고 결심이 약해질 수 있다.

러셀 엠 넬슨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추구하면서 우리는 **그분의 말을 듣는 데 그 어느 때보다도 의도적으로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진리로 우리의 일상을 채우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끊임없이 필요합니다.”²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우리 삶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것이 포함된다.

물론, 더 극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때도 있다. “만일 우리가 심각한 죄에 연루되어 있다면 주님은 분명하고 확고하[시]다. 죄짓기를 멈추고, 감독의 도움을 받으며, 그러한 습관에서 즉시 벗어나야 [한다].”³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자신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 사소해 보이는 우리의 작은 행동에 주목할 수 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에 중심을 둔 작은 선택이 모여 진정한 변화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리스도를 향해 돌이키는 데는 종종 극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결정 하나하나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

속고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다음번 “물 한 방울”이 무엇일지 생각해 본다. 여러분은 오늘 “그의 말을 듣”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

1.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By Small and Simple Things Are Great Things Brought to Pass” (Brigham Young University Women’s Conference, Apr. 29, 2011), womensconference.byu.edu.
2. 러셀 엠 넬슨, “그의 말을 들으라”, 『리아호나』, 2020년 5월호, 89쪽.
3. 마이클 에이 던, “1%의 개선”, 『리아호나』, 2021년 11월호, 107쪽.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안에서 더 굳건해짐

어떻게 하면 인생의 모든 계절을 견뎌 내기에 충분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마크 디 에디 장로
철심인

힐라맨서 3장에는 “지속적인 평화”와(힐라맨서 3:23) “교회가 심히 크게 번영”한(힐라맨서 3:24) 시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천 명이 침례를 받았고, “백성들에게 부어 주시는 복이 심히 많아, 대제사들과 교사들 스스로도 측량할 수 없이 놀랐”습니다.(힐라맨서 3:25)

그러나 슬프게도,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다 하는 자들”의(힐라맨서 3:33) 일부가 교만해졌고 교회의 동료 회원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힐라맨서 3:34 참조) “이제 ... 이로 인하여 백성 중 보다 겸손한 자들이 큰 핍박을 받고 많은 고난을 헤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힐라맨서 3:34)

저는 이 일이 교회의 겸손한 회원들에게 특히 고통스러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 백성들은 레이맨인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나란히 싸웠습니다.(힐라맨서 1장 참조) 그러나 이번에는 내부에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을 박해한 자들은 그들이 함께 만나고 기도하고 배우고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고난 가운데서도 “백성 중 보다 겸손한 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이 한때 그리스도의 동료 제자라고 공언했던 사람들에게서 박해받는 역설을 견뎌 내는 데 도움이 된 것은 무엇이였을까요?

힐라맨서 3장 35절은 이에 대한 답을 줍니다. “그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여, 그 겸손한 중에 점점 더 강하여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안에서 점점 더 굳건하여져서 그 영혼을 기쁨과 위로로 가득 채우기에 이르렀고, 참으로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함과 성결하게 되기에 이르렀나니, 이 성결하게 됨은 그들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라.”(강조체 추가)

이제 힐라맨 시대의 성도들처럼, 러셀 엠 넬슨 회장이 “세계 역사상 가장 복잡한 시대”, “유례 없는 어려움”이라고 표현하신 것을 함께 마주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안에서 점점 더 굳건하여”질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니파이의 신앙을 보여 주는 두 가지 예

경전에는 그 시대의 어려움에 직면하면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안에서 점점 더 굳건해진 남성들과 여성들의 경험이 가득합니다. 그 예로, 처음에는 거의 같았으나 그 끝은 매우 달랐던 영적으로 힘든 두 경험에 대해 니파이가 보인 충실한 반응을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니파이와 그의 형제들이 이스마엘과 그의 가족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돌아왔을 때, 레이맨과 레뮤엘, 그리고 다른 몇몇 사람이 모반을 일으켰습니다.(니파이전서 7:6~7 참조) 니파이는 그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주님을 기억하라고 간청했습니다.(니파이전서 7:8~15 참조) 레이맨과 레뮤엘은 니파이에게 노하여 그의 손발을 줄로 묶고 광야에서 죽도록 버려두었습니다.(니파이전서 7:16 참조)

형들의 행동은 분명 가슴 아픈 일이었을 테고 두려움도 느꼈을 테지만, 니파이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안에서

굳건히 남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주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주를 믿는 나의 신앙을 좇아 나를 내 형들의 손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진정 내게 힘을 내리사 나로 하여금 나를 묶은 이 결박을 끊게 하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니파이전서 7:17)

니파이의 기도는 즉시 기적적으로 응답되었습니다! “결박이 [그의] 손과 발에서 풀렸으며 [그]가 [그의] 형들 앞에 서서 ...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니파이전서 7:18) 니파이는 주님께서 자신을 구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벅차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레이맨과 레뮤엘이 동생을 줄로 묶은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사건에서는 니파이의 구원이 처음과는 상당히 달랐으며,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믿는 니파이의 신앙이 굳건함이 증명됩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바다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던 레이맨과 레뮤엘, 이스마엘의 아들들은 “심히 무례하게”

행동하고 그들의 여정을 축복하신 주님의 힘을 잇기 시작했습니다.(니파이전서 18:9 참조) 니파이는 다시 그들에게 회개를 외쳤고, 레이맨과 레뮤엘은 다시 그에게 성을 냈습니다.(니파이전서 18:10 참조) 그들은 예전에 했던 것처럼 니파이를 잡아 강한 줄로 그를 묶었습니다.(니파이전서 18:11~12 참조)

니파이는 두 번에 걸쳐 줄로 묶였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또는 제가 이 곤경을 다시 겪게 되었다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전에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지! 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어. 내가 주님께 기도하면, 그분은 즉시 기적적으로 나를 구해 주실 거야.’ 니파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두 가지 경험이 서로 비슷했으나 즉각 나타난 결과는 그렇지 않았음을 압니다. 이번에는 니파이가 형들에게서 즉시 구해지지 못하고 나흘 동안 그들의 손에서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니파이전서 18:14~15 참조)

니파이는 전에 겪은 경험을 떠올리며 즉시 구조될 수 있다는 큰 확신을 갖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 구원이 오지 않았을 때, 니파이는 낙담할 수도 있었고, 의심 때문에 신앙이 약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날이 지나고 고통이 커짐에 따라, 점점 더해가는 낙담과 의심의 무게는 니파이의 신앙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는 “왜 내가 구함을 받지 못했는가?”라고 불평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의 신앙은 처음 결박되었을 때보다 더 큰 신앙, 즉 더 성숙하고 온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리아호나, 부러진 활, 그리고 주님의 직접적인 지시 아래 배를 지은 강력한 경험을 통해 그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니파이는 낙담하거나 의심하기보다는 신앙 안에서 굳건히 남았습니다. 그의 신앙은 자신이 구함을 받을 시기나 방법에 중심을 두지 않았으며, 예상했던 결과에 좌우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신앙은 조건부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니파이의 신앙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굳건히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신앙 때문에 그는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며 온종일 그를 찬양하였고, 나의 고난으로 인하여 주를 원망하지 아니하였느니라.”(니파이전서 18:16)

니파이가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한 신앙을 통해 고난 속에서도 위안을 찾았으며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동생 야곱이 이후에 전한 다음과 같은 가르침의 실제 사례입니다.

“굳건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터운 신앙으로 그에게 기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의 고난의 때에 너희를 위로하실 것이요, 너희의 사정을 변호하[실 것이라.] …

… 너희 머리를 들고 하나님의 기쁜 말씀을 받으며, 그의 사랑을 흡족히 취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는 만일 너희의 마음이 굳건하면 영원토록 그리하여도 가할 것임이니라.”(야곱서 3:1~2; 강조체 추가)

우리는 신앙으로 계속 행할 수 있습니다

니파이, 그리고 힐라맨 시대 성도들은 모두 우리가 주님의 도움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더 굳건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여러분은 과연 이 희망이 자신에게 적용되는지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 넬슨 회장님의 다음 말씀에서 위안과 용기를 얻도록 합시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완전한 권능을 얻기 위해 완전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

… 여러분이 신앙을 행사하며 산을 마주하거나 오를 때만큼 주님께서 여러분 가까이에 계시는 때는 없습니다.”³

결국, 십이사도 정원회의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지금 이 순간 우리 대다수는 사회적인 동기에 의해 복음 의식에 참여하는 것과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이 양극단 사이 어느 지점에 이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좋은 소식이 우리 마음으로 들어와 우리 영혼을 차지합니다. 그 일이 한순간에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모두 그 축복된 상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⁴

그러므로 우리 시대에 겪는 독특한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생의 모든 계절을 견뎌 내기에 충분한 신앙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택하겠다고 최종적으로 완전히 결심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안에서 점점 더 굳건하게 되기 위해 노력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굳건한 마음으로 고난 중에 그분의 위로를 받고 그분의 사랑을 영원히 흡족하게 취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저는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의 특별한 다음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질문이나 문제가 무엇이든, 그 답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⁵ ■

주

1. 러셀 엠 넬슨, “세상을 이기고 쉼을 얻으십시오”, 『리아호나』, 2022년 11월호, 95쪽.
2. 러셀 엠 넬슨, “성전과 여러분의 영적인 기초”, 『리아호나』, 2021년 11월호, 94쪽.
3. 러셀 엠 넬슨,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으므로, 그분을 믿는 신앙은 산을 옮길 것입니다”, 『리아호나』, 2021년 5월호, 102, 103쪽.
4.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 『리아호나』, 2018년 11월호, 32쪽.
5. 러셀 엠 넬슨, “답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리아호나』, 2023년 5월호, 127쪽.



전투를 준비하라

“아멜리카이아가 이처럼 기만과 속임으로 권력을 얻고 있는 동안, 다른 한편으로 모로나이는 백성의 마음이 주 그들의 하나님께 충실하도록 준비시키고 있었더라.

참으로 그는 니파이인들의 군대를 강화하며, 작은 보루들, 곧 대피 장소들을 구축하되, 주위로 흙독을 쌓아 올려 그의 군대를 둘러싸고, 또한 ... 석벽을 쌓아 그들을 돌렸더라.”

앨마서 48:7~8



선교사를 지원함
선교사에게 힘의 원천이 되는
3가지 방법

36



기대치를 재고함
영적인 경험을 기대했던
만큼 못 한다면?

30

앨마서 36장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해 교차대구법을 사용함

40

주님을 믿는 신앙
내 신앙은 인생의 모든
계절을 견뎌 내기에
충분한가?

44

